

Open Doors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소식지

VOL.287 | 2026년 05-06월

두려움에 굴하지 않는 신앙

시리아 교회 폭탄 테러,
그 생존자들을 만나다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두려움 없이 남은 사람들

두려움을 넘어선 신앙

굴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시리아, 두려움 없이 남은 사람들

-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 개종 신자들이 처한 더 높은 박해 위험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 - 치유를 찾아가는 여정

박해와 선교현장 - 수단

[연중 캠페인] Arise Africa 캠페인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Heart to Heart

- 사진으로 돌아보는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인천지역 연합기도회'

-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화요 기도 모임 /
금요기도회(5월 / 6월)

- '2026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50일 기도' 소개
및 신청 방법
- 각종 채널 안내
- 희망의 선물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6년 05-06월호 | 통권 287호 |

등록번호-중랑,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지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조남준, 임훈희, 김다운
민태홍, 유진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김안나,
장요셉, 송레아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6588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5, 2층 202호(방배동)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셋별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해 하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 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차

03 두려움 없이 남은 사람들

04 두려움을 넘어선 신앙

08 굴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10 시리아, 두려움 없이 남은 사람들

-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 개종 신자들이 처한 더 높은 박해 위험

16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 - 치유를 찾아가는 여정

20 박해와 선교현장 - 수단

22 [연중 캠페인] Arise Africa 캠페인

24 Heart To Heart

- 사진으로 돌아보는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인천지역 연합기도회'
-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화요 기도 모임 / 금요기도회(5월 / 6월)
- '2026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50일 기도' 소개 및 신청 방법
- 각종 채널 안내 - 희망의 선물



두려움 없이 남은 사람들

이번 소식지에서는 기적처럼 보이고,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을 따른다고 확언합니다.

이 신자들은 이 지역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은 떠날 것인가 남은 것인가라는 실제적인 딜레마에 직면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했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음을 믿으며, 설령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변함없이 그분을 섬깁니다.

시리아의 경우, 우리는 10년 넘게 공격받고, 쫓겨나고, 소외당해 온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시리아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특히 2025년 6월 다마스쿠스 성 엘리야스 교회에서

발생한 교회 폭탄 테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사건이 그곳 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신앙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테러로 2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사망했지만, 그 파급 효과는 훨씬 광범위하여 시리아가 2026년 세계 박해 지수 상위 10위 안에 진입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멘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멘에 4만 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급진적인 비전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그곳에 거주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도 두렵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시리아와 예멘의 이 이야기들은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했기에 매일같이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이며, 우리는 이들을 굳건하게 하는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 요한계시록 3:2 -



**두려움을
넘어선 신앙**



자살 폭탄 테러로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던 그 순간. 1년이 지났지만, 엘리야스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시리아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테러가 일어나는 데는 단 3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로 단 30초 만에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성 엘리야 교회가 파괴되었고 그 안에 있던 22명의 신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스(56)와 아내 하난(39)은 지난해 6월 22일 주일에 일어난 일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날 그들은 일곱 명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학살이었습니다." 엘리야스가 말합니다. "14년 동안 내전을 겪었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공격이 일어나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다섯 아이의 아버지인 엘리야스는 교회에 모인 300명의 사람이 총소리에 놀랐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 드웨일라 지역에 위치한 세인트 엘리야스 교회는 참혹한 폭탄 테러 이후 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22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참한 학살의 현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테러범이 들어와 좌우로 총을 난사하며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엘리야스는 회상합니다. "내 형제들인 부트로스와 게리에스가 테러범을 막으려 달려들었을 때, 그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폭발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교회는 혼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현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회가 온통 붉게 변했습니다."

금속 파편이 엘리야스의 허벅지에 박혀 피가 심하게 흘렸습니다. 그의 두 형제와 누이 한 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사이 하난은 공포 속에서 아이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어요. '주님, 제발 아이 한 명이라도 더 찾게해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눈에서 피를 흘리는 한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얼굴은 부어올랐고 머리카락은 타버린 상태였죠.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이가 신은 신발이 눈에 들어왔고, 그제야 제 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두려움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 엘리야스

테러는 30초 만에 끝났지만, 이 가족은 매일 그날의 기억으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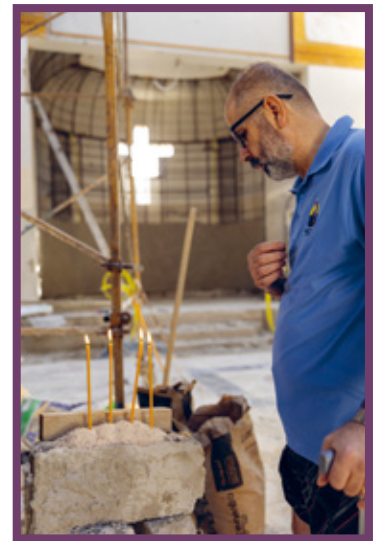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갈등과 박해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시리아를 떠났습니다. 2011년 약 180만 명이었던 신자 수는 이제 겨우 30만 명에 불과합니다.

성 엘리야 교회 폭탄 테러는 이 줄어드는 공동체의 심장을 찢은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신자가 더 이상 교회에 가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포 속에서도 신앙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최근 성 엘리야 교회에서 22명의 아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2025년 6월 테러로 목숨을 잃은 그리스도인 수와 같은 인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에 갈 것입니다. 두렵더라도 우리는 갈 것입니다." 하난의 말에는 굳은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최근 엘리야스와 그의 가족들은 테러 이후 처음으로 성 엘리야 교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엘리야스는 목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해 보입니다.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자 아브라함은 겁에 질려 형제들과 함께 도망칩니다. 트라우마는 여전히 생생하며 쉽게 자극받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겁을 먹어요.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난이 슬프게 설명합니다.



폭발 테러로 희생된 형제들을 추모하며 촛불을 밝히는 엘리야스(56세)

이 가족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무슨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교회로 향할 것입니다.” - 하난

"우리는 여기서 여러 두려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엘리야스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비눗방울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픈도어의 비전은 엘리야스와 하난,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처럼 담대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시리아의 수많은 교회 지도자가 트라우마 치유 워크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훈련을 마쳤으며, 엘리야스와 하난의 아이들도 다마스쿠스에서 열리는 치유 세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오픈도어의 트라우마 치유 사역을 이끄는 전문 심리학자 라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과도 같은 사역은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있어야만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엘리야스가 말합니다.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보안을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손길이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을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 4만 원으로 박해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생존 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6만 원으로 극심한 박해를 겪은 그리스도인에게 트라우마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8만 원으로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필수적인 생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 후원 (계좌로 입금)

KB 국민은행 029301-04-167093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정기 후원

은행이체: 홈페이지(opendoors.or.kr) - 후원하기 - CMS 선교회

신용카드: 홈페이지(opendoors.or.kr) - 후원하기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엘리야스, 하난, 그리고 다섯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며, 주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길 기도해 주세요.
- 전쟁과 폭력, 재난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온 시리아의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 두려움과 상실,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전 세계의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길 기도해 주세요.

굴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중동 전역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떠나라는 압박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두려움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란의 세타레와 함께하는 기도

세타레*는 심장이 고동치는 것을 느끼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미용실에 한 여성이 목에 작은 십자가를 걸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타레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좋아해요."

그것은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느꼈습니다."

세타레는 이 여성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만약 그녀가 스파이라면 어떡하죠? 이란 정부가 기독교 개종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세타레는 자신을 꿈쩍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느꼈습니다." 세타레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성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어 가족 두 명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타레는 이란에서

용기 있고 강력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신자들의 모임을 이끌고, 거리의 아이들과 노숙인들에게 직접 만든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세타레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 세타레의 용기 있는 신앙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녀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길 기도해 주세요.
- 그녀의 사역에 보호하심과 지혜가 함께하길,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계속 맺히길 기도해 주세요.
- 이란과 중동의 갈등 상황 속에서도 신자들이 용기와 보호하심, 인내를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타레는 전 세계 형제자매들의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예멘의 자이드와 함께하는 기도

자이드*는 긴장한 채 길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려는 일은 감옥에 갈 수도,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곧 자이드는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인 알라*가 보낸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악수를 나누고 근처 공공 수영장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진 곳을 찾아 조용히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자이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신앙에 대해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수영장을 나와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예멘에서 그리스도인을 직접 대면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의미를 찾는 오랜 여정 끝에 맞이한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이드는 꿈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온라인에서 알라를 알게 되었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이드의 신앙과 이해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분은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저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입니다!”**

"18개월 동안 알라와 함께 제자 양육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를 만난 적도,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었



자이드와 예멘의 남은 신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죠." 자이드는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분은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저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기로 한 결정은 자이드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때렸고, 가족들은 그를 외면하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박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멘을 떠나지만, 자이드는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 제 동족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자이드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입니다**

- 자이드와 같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용기 있고 신실한 증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갈등과 고립 속에서도 예멘 신자들의 힘을 새롭게 해주시길 주님께 간구해 주세요.
- 예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깊은 교제와 연합, 그리고 격려가 넘치기를 기도해 주세요.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바샤르 라함 신부님은 다마스쿠스의 그리스 가톨릭 소속 신부입니다. 그는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가 설립한 상담 학교의 졸업생 60명 중 한 명입니다. 지난 3년간 시리아 전역의 다양한 교파를 가진 학생 두 그룹이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라함 신부님은 성 엘리야 교회 폭탄 테러 피해자들이 트라우마 지원을 받고 있는 상담 사역을 시작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본 인터뷰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이 고국을 떠나고 압박을 받는 시리아 교회의 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전합니다.



Q. 시리아 기독교 인구가 2011년 약 180만 명에서 현재 약 3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떠나게 하나요?

과거 시리아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시작된 혼란은 기독교 공동체를 뒤흔들었고 불안과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이 보장되는 다른 나라로 떠나 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리아에 남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Q. 많은 이가 떠나면서 생기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청년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고, 교회가 없는 청년에게도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는 청년들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에는 해외에서 성공하려는 세대와 이곳에 남아 일하려는 세대 사이에 격차가 존재합니다. 남으려는 세대가 점점 사라지면서 기독교 문화와 신앙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젊은 세대를 깨워 시리아 교회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시리아 교회가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십니까?

교회가 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의 기원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신앙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목표는 시리아에 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신앙의 근원인 '살아있는 신앙의 씨앗'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시리아는 언제나 문명과 기독교의 요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Q. 2024년 12월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든 전환기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따릅니다. 현재 경제 상황과 정권 교체로 인해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미래를 예측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과 확신입니다. 하지만 현재 권력을 잡은 이들이 이를 보장해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Q. 2025년 6월 25일 발생한 성 엘리아 교회 폭탄 테러가 교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우리에게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교회가 여전히 안전한 장소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많은 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밀알 하나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시리아 교회는 초기부터 전쟁과 순교를 경험해 왔기에 어떤 적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땅을 지킬 것입니다.

Q. 오늘날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안전과 생계입니다. 가정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직업을 전전해야 하고, 부모의 부재 속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정의 붕괴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 중 하나입니다.



Q. 교회는 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국제 구호 단체와 기관들이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하며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 시리아 교회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순교의 오랜 역사를 기억하며 굳건히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은 우리의 위로이자 근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빛과 소금, 누룩의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Q. 난민들이 시리아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가 고향과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잠시 돌아오지만, 그들이 이곳에 계속 머물 것인가는 또 다른 도전 과제입니다.



Q. 전 세계 교회가 시리아 교회에 대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시리아 교회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시리아와 이곳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시리아 교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셋째로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재확인해 주십시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사라졌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Q. 오픈도어는 이 불안한 시기에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식량 지원과 소자본 창업을 지원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전 상황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테러나 지진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트라우마 케어가 왜 중요한가요?

내전 시작 이후 우리는 수많은 트라우마에 직면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손을 잡고 치유의 여정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은 고립된 이들이 자신과 화해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돕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Q. 트라우마 케어의 구체적인 결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요?

한 어린이 캠프 기간에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우리는 4일 동안 해변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활동과 놀이 시간 내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보살피고 동행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맡았던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를 아버지 같은 존재로 느끼기 시작했고,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심한 돌봄과 인도함을 받으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이 사랑을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자,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도록 돕고 있으며, 실제로 그들의 삶과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Q. 트라우마 상담 사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상담학을 공부할 때, 한 박사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도달해 본 적 없는 삶의 전환점으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희생하며 상담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자인 우리 역시 먼저 스스로 치유되어야 할 부름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를 위해 교회가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온 마음을 다해 완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시리아의 상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Q. 전 세계 교회가 시리아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을 묵상하던 중,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신앙에 소홀해지는 죄를 범할지 모르고, 반대로 너무 적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며 회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이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날 시리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진 생계에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평화와 안전, 그리고 형제애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으로 갈기갈기 찢긴 이 형제애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리아가 기독교와 문명의 요람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Q. 국제사회가 시리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리아 공동체는 언제나 모든 종파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시리아의 대부분 지역에 다양한 종파가 섞여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리아 사회라는 거대한 직물의 한 올이며, ‘다마스쿠스의 모자이크’를 구성하는 일부입니다. 비록 종파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분열이 생기기도 하지만, 시리아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공존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열의 틈을 벌리는 외부의 목소리와 간섭을 멈춰야 합니다. 시리아가 다시 일어나 자립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리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통치하느냐가 아니라, 당장의 생계와 삶의 문제입니다.



개종 신자들이 처한 더 높은 박해 위험



시리아 개종 신자들, 더 높은 박해 위험에 처해 있다

시리아(2026년 세계 박해 순위 8위)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폭력의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타종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신자들보다 훨씬 더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시리아 개종 신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개종 신자들과 밀접하게 일하는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명은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과 일하며, 다른 한 명은 드루즈(Druze) 배경의 개종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드루즈는 시아파 이슬람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주류 시아파(또는 수니파) 이슬람과 크게 다른 신앙을 가진 민족 종교 집단입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들의 이름은 언급할 수 없습니다.

Q. 시리아 개종 신자들의 박해에 대해 무엇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들은 무엇에 직면해 있습니까?

이슬람이나 드루즈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거대한 배신으로 간주되며, 이는 가족과 지역 지도자들의 격렬한 반대로 이어집니다. 재산 몰수, 구타, 심지어 처형을 포함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중동의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리아에서도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장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이 새로운 신자들의 개종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면, 그들은 대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며,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많은 경우 개종자들은 신체적 학대에 직면하며 때로는 살해 협박까지 받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일부는 위협을 느껴 나라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한, 시리아에서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합법적인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Q. 시리아에서 개종자 공동체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지난 몇 년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모든 폭력으로 인해,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 더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평화롭다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개종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주로 북부의 쿠르드족(무슬림이 대다수인 민족)과 남부의 드루즈족(시아파 이슬람에서 유래했으나 현재는 주류 이슬람과 크게 다른 신앙을 가진 민족 종교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개종자들만 구성된 교회에 모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기존 교회에 합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쿠르드인 가정이 500가구(1,000명 이상)를 조금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드루즈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수천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의 한 기독교 지도자는 "우리는 계속해서 드루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합류하고 있지만, 그 수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구 정권이 무너진 이후 개종자들의 상황에 변화가 있었나요? 새 정권이 들어선 첫째, 정부 차원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엄격한 이슬람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향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정권은 종종 개종을 묵인하곤 했습니다.

시리아 북부의 한 쿠르드족 개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개종자들을 추적하거나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진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공동체의 이슬람 영향력이 강해졌고, 갑작스러운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정부가 개종자들에 대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공동체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결국 우리가 새로운 신앙을 숨기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많은 쿠르드족 개종자가 분쟁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는 수많은 검문소로 인해 자유롭게 교회에 출석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러 쿠르드족 신자가 시골 지역에서 쫓겨나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시리아 남부의 드루즈 다수 거주 도시인 수와이다(Suwayda)에서 드루즈 민병대와 베두인(새 정부 편에 서는 경향이 있음), 그리고 새로운 시리아 보안군 사이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전통적 그리스도인과 드루즈 배경의 개종자 모두)은 그 사이에 끼어 고립되었습니다.

시리아 내 오픈도어 사역자 중 한 명은 분쟁 기간 동안 드루즈 교회가 마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쉼터로 개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약 50명의 드루즈 사람을 맞이했고, 개종 신자들은 그들의 기본 생필품을 공급하며 교회를 도왔습니다."라고 파트너는 전합니다. "심지어 어떤 가족들은 피난민들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일부 드루즈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이 "불안정함이 특징이지만, 교회는 어둠 속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Q. 시리아 내 오픈도어는 개종자들을 어떻게 돕고 있나요?

드루즈 배경의 개종자들을 위해 오픈도어는 리더십 훈련과 제자 양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또한 현지 파트너는 난방비, 교통비, 교육 자료 등을 포함하여 현지 교회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이슬람 출신 개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하는 등 소득 창출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개종자들과 다른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안정을 주는 '소망의 센터(Centers of Hope)'의 활동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개종자들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아 안전한 머물 곳이 필요할 때 임대료를 지원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일상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

자이드(Zaid)*에게는 예멘 전역에 4만 개의 가정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이 용기 있는 리더를 강건하게 하며, 강력한 사역에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예멘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있습니다.

예멘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 어느 곳보다 어렵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위치한 이 이슬람 국가는 기독교인에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위험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개종자들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며, 대부분의 신자는 신앙을 비밀로 유지합니다. 한편, 수년간의 전쟁은 경제를 무너뜨렸고 기아와 고난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예멘은 하나님이 자이드를 부르신 곳입니다. 여러분의 예물과 기도는 이 작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리더인 그를 굳건히 세우고 있습니다.

십 대 시절 이슬람에 환멸을 느끼고 진리를 찾기 시작했던 자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멘에는 예수가 필요하기에,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이곳에 제 가족과 형제들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자이드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그는 '오픈 도어(Open Doors)'의 파트너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후원은 새로운 신자들이 함께 모여 살며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자이드의 '제자 훈련의 집'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비전은 예멘에 4만 개의 가정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예멘인 1,000명당 하나 꼴로 교회가 생겨,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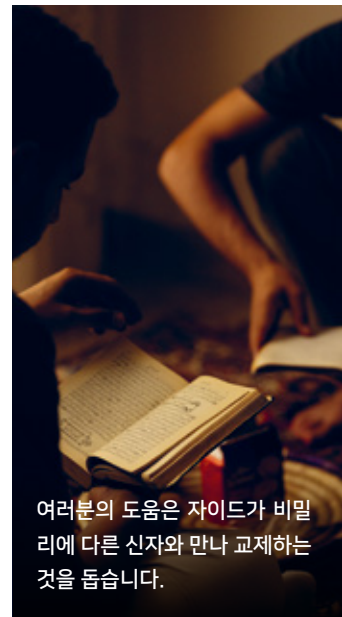
자이드는 신약성경의 바울에게서 용기를 얻습니다. "바울은 저와 비슷한 위험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저는 극단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공동체를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해냈다면, 저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자이드의 비밀 제자 훈련의 집에서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토론합니다. 자이드는 이곳에서 예멘의 미래 가정 교회 지도자들이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재정적 후원도 필수적이지만, 무엇보다

자이드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얼마 전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요청했는데, 왓츠앱(WhatsApp)으로 음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이드가 말합니다. "모임에서 그 녹음 파일을 재생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우리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 같았죠.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자이드가 비밀리에 다른 신자와 만나 교제하는 것을 돕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었다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 덕분에 자이드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멘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자이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초대 교회와 함께 하시며 능력과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곧 빛이며 우리 안에 빛을 품고 있기에, 모든 이가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 자이드의 용기 있는 사역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와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 자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전쟁으로부터의 평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평화를 위해서요."
- 자이드의 제자 훈련의 집에 출석하는 비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구합니다.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치유를 찾아가는 여정

아버지가 살해당한 후,
여러분의 후원은 제니가 치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시리아에서 폭력적인 박해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다른 신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폭탄 테러로 제니의 삶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그녀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평온하고 따뜻한 저녁, 제니가 집 밖에서 친구와 담소를 나누던 중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순식간에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성 엘리아 교회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자살 폭탄 테러였다...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버지가 그곳 미사에 참석 중이셨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제니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린 기분이었어요. 온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 주저앉고 말았죠."

"주님은 우리 편이시며, 교회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제니는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드웨일라 지역에 있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혼돈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부상을 입고 수술 중이셨지만, 곧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제니는 충격과 상실감으로 감각이 마비될 정도의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절, 여러분이 그곳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친절은 제니를 치유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랑과 지지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를 떠올리며 제니는 말합니다. "전 세계 교회를 포함해 많은 이들로부터 넘치는 애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슬픔을 공유하며, 우리가 겪은 일에 함께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의 후원은 다마스쿠스에서 트라우마 상담가를 양성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니도 그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상담 교육을 통해 배운 기법들로 자신의 슬픔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제가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 스스로를 도우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 강건해진 이 용기 있는 여성은 성 엘리아 교회 폭탄 테러의 또 다른 젊은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 곁에 서서 지지해주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관대한 후원 덕분에 아이들과 성인 모두 그룹 또는 개인 세션을 통해 트라우마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경적 가르침과 상담 기법을 결합하여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신앙은 치유에 큰 도움이 되지만, 폭력과 박해는 때때로 신앙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마주한 공포가 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결국 치유해 줄 것입니다"라고 제니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심 그 자체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언젠가 교회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 폭탄 테러의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계속해서 치유받고 있는 제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오픈도어를 통해 트라우마 치유 사역자로 훈련 받은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감사 기도를 드려 주세요.
- 제니는 전합니다. "아이들이 강건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성 엘리아 교회에서 본 것을 잊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무척 힘든 일입니다."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6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기독교 박해지수

4 위

수단 (SUDAN)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2021년 수단 군사 쿠데타 이후 기독교인들의 처지는 악화되었다. 그 이전에도 정부는 “도덕 정책”과 알바시르 정권 시기의 관료들을 다시 들여왔었다. 사회 전반의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은 여전히 강하며, 개종자나 아프리카계 기독교인들은 외부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심각한 학대를 겪는다. 2023년 4월 신속지원군(RSF)과 수단 군이 교전을 시작하면서 막대한 파괴가 발생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25년 1월 미국 국무장관은 RSF 대원들이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이유로 그들의 지도자 “헤메티”에 제재를 부과했다(Reuters, 2025년 1월 7일). 2025년 3월까지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수단의 내전이 “특히 취약한 종교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USCIRF 2025 연례보고서, p. 75), 이슬람 후두드 법이 체벌과 이슬람으로의 강제 개종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백 개의 교회가 훼손되고 종교 집회가 방해받았으며 신앙 지도자들이 구금되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교육, 고용, 사법 접근 전반에서 광범위한 차별에 직면해 있다.

수단 (SUDAN)

국가 정보

지도자 : 압드알파타흐 알부르한
압드알라흐만 장군

인구 : 50,615,000명

기독교인 수 : 2,201,000¹

주요종교 : 이슬람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2,201,000	4.3
무슬림	46,538,000	91.9
민속종교	1,333,000	2.6
기타	543,000	1.2
	합계	100%

출처²

수단의 기독교인 상황은 2021년 10월 군사 쿠데타 이후, 2023년에 발발한 내전이 겹치면서 위기적 수준에 이르렀다. 긍정적 변화를 시사하는 국제적 서술에도 불구하고, 특히 개종자와 아프리카계 기독교인들이 겪는 현실은 극심한 박해와 지속적인 공포이다. 군부는 민간 주도의 과도정부를 해체하고, 기독교인을 박해한 것으로 알려진 억압적 알바시르 정권의 인물들을 복귀시켰다. 2022년 8월에는 정부가 지역사회 치안 활동으로 위장한 도덕 정책을 재도입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다르푸르 위기, 2011년 남수단 분리독립, 누바족의 투쟁을 포함한 수단의 복잡한 분쟁사는 깊은 종교적·민

족적 분열을 낳았다. 무슬림이 다수를 이루는 수단은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가혹한 환경이다. 콥트 정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기독교인들은 하르툼과 같은 도시에 기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교단들도 함께 존재한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은 특히 가혹한 박해에 직면한다.

2021년 쿠데타는 지속적인 불안을 초래했고, 2023년 4월 신속지원군(RSF)과 수단 군 사이의 폭력적 충돌로 이어졌다. 2024년 10월까지 유엔난민기구(UNHCR)는 거의 300만 명이 인접 국가로 피난했으며, 이집트가 가장 많은 유입을 받았고 그 다음이 남수단과 차드였다고 보고했다. 유엔 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3,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960만 명의 국내실향민과 1,500만 명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어, 수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 위기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전체 내용 확인하기

전체 내용은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opendoor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¹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¹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수정.

폭력을 멈추고, 치유를 시작합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기독교인을 향한 폭력은 유례없는 수준이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정든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약 1,620만 명의 기독교인이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단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폭력적인 박해는 전례 없는 규모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하고, 성폭행을 당하며, 납치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신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교회를 파괴하려 합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이 하나 되어 자신들과 함께 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멈추고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과 연대하여 백만 건의 기도와 청원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겪고 있는 폭력에 대해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1. 100만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본 페이지를 자르거나 복사하시어 교회나 모임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홈페이지(opendoors.or.kr) - 캠페인 후원 - 아프리카 기도 캠페인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 신청하기]

2. opendoors.or.kr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추가하시고, 정기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의 소식들을 확인해 주세요.



[어라이즈 아프리카 100만 서명 운동]

우리는 국제 사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보호: 무장 세력의 무분별한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것

정의: 폭력을 자행한 이들을 반드시 기소하고, 정의를 실현할 것

회복: 고통받는 피해자들과 공동체를 위로하고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오픈도어는 이 행동 촉구문을

2026년 말에 아프리카연합(the African Union)과 유엔, 기타 국제 기구 및 세계 각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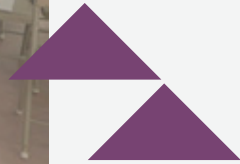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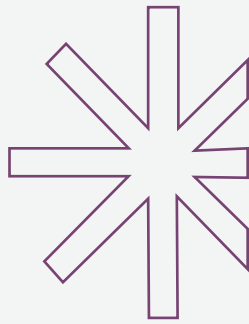
지금까지 서명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박해 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026년 10월 말까지 100만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5일 기준, 전 세계에서 53만 4,980명이 서명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청원 신청하기]

opendoors.or.kr
캠페인 후원 - 아프리카 기도
캠페인에서도 참여 가능.



사진으로 돌아보는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인천지역 연합기도회'



지난 3월 20일(금요일) 오후 8시에 인천의 '콜링교회(오준혁 담임목사)'에서 오픈도어선교회 주관으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인천지역 연합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콜링교회, 담장너머교회(홍승현 담임목사), 함께하는교회(이세일 담임목사), 개인 후원자들을 포함하여 약 40여 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날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란의 박해 상황과 박해 가운데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가는 이란 형제자매들의 이야기가 나누어졌는데요. 이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을 더욱 모아지게 했으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도전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 상위 5개국을 위해 한 국가씩 상세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사역자분과 성도분들께 은혜가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울러,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회는 꾸준히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분이 함께 모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참여자 후기

좋았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선교단체를 만난 것도 좋았고 나의 교회, 너의 교회가 아닌 공교회가 만나서 기도하는 시간도 뜻 깊었습니다 :)
- 유승일

전 세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어둔 밤 지나고 동트는 소망이 그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를 기도합니다. 얼굴도 이름도 상황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걸 알게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울고 기도하고 중보해야함을 느꼈습니다. 전쟁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곳의 모든 땅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 정조현



01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금요기도회 (5월 / 6월)

2026년 5월 22일(금) 밤 10시

6월 26일(금) 밤 10시

주관: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장소: 헤린교회

(이바울 담임목사, 경기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26)

문의: 02-596-3171

참고: 헤린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

화요 기도 모임에 초대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30 - 9:00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화요 기도 모임'을
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따뜻한 분위기로 맞어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QR코드를 통해 줌 접속하시거나

전화 02-596-3171로 문의하시면 접속

링크를 문자 등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03

'2026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50일 기도' 소개 및 신청 방법

해당 책자에는 2026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에 관한 발표 자료와 박해 지수 상위 50개국의 간단한 프로필 및 기도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아울러, 박해 지수 상위 국가들에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해당 책자를 이용하여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상위 50개국을 위한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opendoors.or.kr) >

요청하기 - 각종 자료 요청



각종 채널 안내

저희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박해 뉴스, 간증, 스토리, 기도 제목 등을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_Open Doors)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매주 1회 카카오톡으로
박해 뉴스, 현장 스토리 등이 담긴 Weekly를 받으실 수 있
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는 매일 박해받는 교회의 기도 제
목이 올라옵니다.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인스타그램 (@opendoors_kr)

페이스북(한국오픈도어)

유튜브('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메일 뉴스레터 신청 안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의 소식, 기도제목을
이메일로 매주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뉴스레터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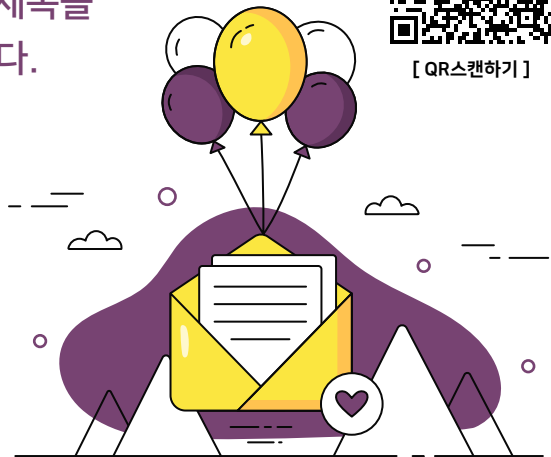
1. QR코드
2. 문자 / 전화 신청 :

성함과 이메일 주소, 이메일 뉴스 신청 

이라고 적어서 010-7548-3171번으로
문자주시거나 전화하여 신청해 주세요.



[QR스캔하기]





나의 희망의 선물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 - 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7000원~)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 - SSTS세미나 등 (30,000원~)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30,000원~)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40,000원~)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40,000원~)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50,000원~)



여성, 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 (50,000원~)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50,000원~)
- 선물9. 박해피해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30,000원~)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60,000원~)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60,000원~)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20,000원~)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 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일시 후원 또는 정기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1. 일시 후원

- 후원 항목을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세요 (다중 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 휴대폰,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중 하나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2. 정기 후원(매월 자동이체)

아래 내용을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 요한계시록 3:2

두려움에 굴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이 지켜주시겠습니까?

엘리아스와 그의 가족이 교회에 있을 때,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22명의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았습니다. 신실하게 말이죠. 이제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금 6만 원은 박해와 폭력에 노출된 그리스도인 한 명에게 생명과도 같은 트라우마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신앙과 두려움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엘리아스는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후원하기

후원 계좌: KB 국민은행 029301-04-167093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정기후원

은행이체: 홈페이지(opendoors.or.kr) - 후원하기 - CMS 선교회

신용카드: 홈페이지(opendoors.or.kr) - 후원하기

후원 문의: 02-596-3171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감사합니다.